

양 돈 강 좌

임 영 덕
 <대 아 물 산>



(I)

소위 돼지의 질병 혹은 그중 후군이란 첫째 어떤 종류의 병원체 혹은 병원체군에 의한 것 둘째 돼지의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다 든지 혹은 반병돈(半病豚)에 의한 2차적 영양결핍증, 세째 제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네째 유전적 결함등의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 혹은 복합으로 나타나 양돈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앞에 열거한 제 요인을 완벽하게 막을수만 있다면 돼지의 질병은 억제될수 있으며 따라서 양돈경영에서 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코레라 같이 이미 백신이 개발된 것은 그 백신의 접종으로서 해당 질병을 막을 수 있고 백신이 미 개발된 질병은 타당성 있는 사양관리에 의하여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단한 노력(관리자)은 질병으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돼지의 질병은 인간의 질병과는 그 질병에 대한 사고 방식이 현격하게 틀려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질병은 설혹 그 질병이 유전적인 것에 기인된다. 하더라도 경제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려 하지만

돼지는 그 자체가 경제적 動物임으로, 간단히 도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인간의 질병은, 질병 원인이 환자의 부절제에 기인된것이라 할지라도 의사는 다만 조언 할 따름이지 결코 강제하지는 못하나 돼지는 일생동안을 관리자의 관리하에 놓여짐으로 이들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관리하에 따른 다는 것이 틀린 점이라 할수 있다.

왕왕 양돈가는 돼지의 생리를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질병에 약한 돈군(豚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약품등으로 치료내지는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왕왕 볼수 있으나 양돈경영의 성공의 첩경은 가능하면 무병한, 그리하여 튼튼한 돈군을 만드는 일 같이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유전적 결함이 있는 돼지의 도태와 雜種強勢

인간의 유전적 결함을 우생학적으로 배제하려는 일은 대단히 문제가 있으나 돼지의 경우는 해르니아를 선두로 유전적 결함이 있는 돼지를 인위적으로 도태하는 일이란 간단하다. 다만 나아가서 이 항목에 대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돼지 뿐만 아니라 유전력에 의한 돼지의 형태라고 본다. 밀사(密飼)된 돼지(한 돈방중의 돈군이 변소 이외의 곳에서 횡(橫)으로 누워서 잘수 있는 정도의 밀도 이정도 사육하지 않으면 다두 사육에서는 경영적 성공은 불가능 하다)의 건강 기초는 장기의 건전한 발달에 의한것 특히 폐 발달상태의 양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양부와 밀접하 관계가 있다.

폐의 발달이 좋은 돼지는 흉폭이 넓고 들직한 맛이 있으며 어깨의 폭이 원만하고 복부는 견실하며 이런 형태의 돼지일수록 발육이 빠르다. 소위 말하는 Meat Type의 특징인 것이다.

흔히 풍속적으로 권장되는 자돈이 상술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 즉 어깨가 가볍고 위에서 보다 옆에서보다 췌기 모양의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깨와 가슴이 좁고 흉부가 깊은 맛이 없고 복부에 오히려 깊은 맛이 있는(실은 복부의 깊은 맛은 지방이다)형이었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형의 돼지를 밀사하면 거의 반병군(半病群)으로 되기 쉬운 것이다. 또 전술한 형의 돼지를 권장하는 사람을 대개 유유럽의 예를 들어서 그의 훌륭한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유유럽을 한번이라도 시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곧알수 있는 결론으로, 유유럽의 일반농가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의 환경은 사육밀도가 성글고 신선한 환경에서 비교적 충분한 칩상을 갖이고 있음을 알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형의 돼지를 우리나라에 권하는 것은 우선순이 있는 것이며 실제 상술한 형의 돼지를 권장하는 사람도 번식돈은 방목장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번식돈에게는 반듯이 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가 되는 것인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번식돈을 사육할수 있다면 번식돈을 할수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을 당하게 되어 특정조건을 갖춘 특정인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으로 미루어 볼진데 폐가 튼튼한 돼지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방목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실제로, 카달성 폐염에 걸린 돼지도 방목을 하게 되면 자연히 치료가 되는 경우를 많이보아 왔으며, 번식돈 1두당 25m²의 넓이를 주어 군사한다든지, 케이지에 넣어 사육하여 성공한 예를 많이 보아 왔다.

다만 여기서 권장하는 돼지의 형은 Meat Type의 돼지여야 하며, 폐의 발달이 충분하

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돼지는 사도하므로서 실패만 자초할 것이고, 결국 자연 도태되고 말것은 자명하다. 좀더 심한 표현을 쓴다면 돼지는 생물이며 또 가축인고로 췌기형의 돼지를 선발하여 사육한다면 이는 「병원(病院)이나 요양소(療養所)같은 골의 사양 관리형이 되지 않으면, 自然界의 生存경쟁은 그러한 돼지를 살려주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동물인 돼지가 축주에게 이익을 갖어다 줄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년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기업적 양돈이란 생존 그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췌기형의 돼지란 유전적으로 볼때 기형적인 것이며 사육조건에도 소비조건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임은 제언이 불요하다고 본다. 고로 돼지 질병 억제 제 1보는 이러한 기형돼지를 선발하여 처치해 버리는 일이라고 본다.

이품종(異系緣)간의 교잡은 잡종강세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돼지의 경우는 순수종간의 이계통보다. 2 품종에 의한 F₁, F₂보다 3 품종간의 교잡종 쪽이 잡종강세의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통속적으로 F₁까지는 좋으나 3원잡종까지는 그렇게 즐겨할 것이 못된다하는 견해이나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3원잡종에서 탄생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3원잡종에서 탄생하는 돼지의 형태가 비교적 제멋대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품종에 따라 돼지의 형이 틀리다는 전제를 옳다고 인정할때는 앞의 견해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양돈선진제국에서는 최근 귀를 찢라버린 다음의 랜드레이스와 대형 요구샤를 구별할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음을 곧 느낄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돼지는 어떤 일정목표를 두고 계속 선발하면, 형자체의 변화 고정이가능하다는 말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본다.

돼지의 개량이란 그나라의 소비자과 생산자의 기호에 적당한 형이면 되는 것이지 결코 만국 공통의 개량목표가 될수는 없다.

항상 자기나라 자기조건에 맞는 돼지의 선

발과 개량만이 요청되는 것이지 무조건 외국의 좋은 돼지가 어떤 곳에서든지 좋은 성적과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명심하여야 한다.

2. 완전한 영양

좋은 영양이란 돼지의 일생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돼지가 필요로하는 제영양소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줄 것과 급여하는 사료의 질과 양이 어떤 돼지의 능력에 적합한 것인가가 고려된 것이다.

보통 돼지의 경우 TDN 63%의 것이 적당하나 Meat Type의 것은 TDN 77%(대사에너지로부터 환산한 것임)의 부단급이가 바람직하다. 또 베이콘 Type의 돼지는 TDN 70%정도의 사료로 제한 급여를 하는 것이 좋으나 이는 오직육질(肉質)을 고려할 따름이지 건강면을 고려한다면 역시 부단급이를 하는 편이 좋다(육질면에서는 지방의 두께를 고려한 것임)

그러나 베이콘 Type의 돼지라고 부르는 렌드레스도 선발에 따라서는 TDN 77%의 사료를 부단급이 하여도 지방의 두께가 얇은 양질의 것을 생산할수 있는 실례를 볼수 있으나 이는 사료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입는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일본의 양돈사육에 있어서 보통 사용되고 있는 사료의 영양함량을 보면 TDN이 최소한 70%는 되어야 한다. 이 사료중 조섭유 함량은, 유지첨가 사료는 별도로 하고 5%이다. 또 77% 사료의 조섭유 함량은 3% 전후이다. 번식돈의 경우 조섭유는 10%, TDN 62%에서 65%까지 허용되고 있다. 유동식(流動食)의 경우 사료와 물의 배합비는 통상 육돈에서 1:2.5(중량비)이나 여름철에는 1:3이 좋고 임신돈은 1:5까지 허용된다.

이상의 숫자에서 조섭유와 여분의 물을 소화시키기 위하여는 체에너지의 소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돼지에 대한 에너지의 공

급량은 가속적으로 감소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각종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증후를 나타낸다.

또 유의하여야 할일은 안전배합사료중 원료의 변질이 문제거리로 대두한다. 성분표상에 조섭유의 함량이 적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원인 사료원료의 변질은 사료가를 형편없이 변질시키고 만다.

또 산화지방에 의한 발육정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사료를 제일 간단하게 판별해 낼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먹어보는 것으로서 맛은 나빠도 상관 없으나 곰팡이 냄새가나는 것은 곡물원료의 변질을 뜻하고 따따금 하든가 얼얼할 경우는 동물단백사료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칼슘과 인의 함량과 비율은 유의하여야 한다. 칼슘함량은 번식돈과 자돈은 0.7%, 그 이외의 돼지는 0.5% 정도가 적당하며 비율은 1.2:1이 적당하다.

市中 사료원료가 보통 곡물사료보다 칼슘사료가 저렴함으로, 따라 케라도이즈를 일으키는 한계량인 0.9%까지 첨가하는 경우를 보나 이는 첨가하여 완전히 파라케라도 미즈증을 일으키나 0.9%선에서는 빨간 반점이 전신에 생기는 선에서 머무나 발육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에너지부족 증상과 같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저렴한 사료일수록 조섭유가 많고 이를 조금이라도 카바하기 위하여 과잉칼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양측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의 돼지를 영양부족돈으로 만들고 만다. 돼지가 건강하고 또 그능력을 최고로 발휘할수 있으려면 포유중인 자돈의 색체에 가까워야 한다.

여러번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꼭 싼 사료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가축의 사료에서도 조금은 음미해 볼 말이라고 본다.

—계 속—